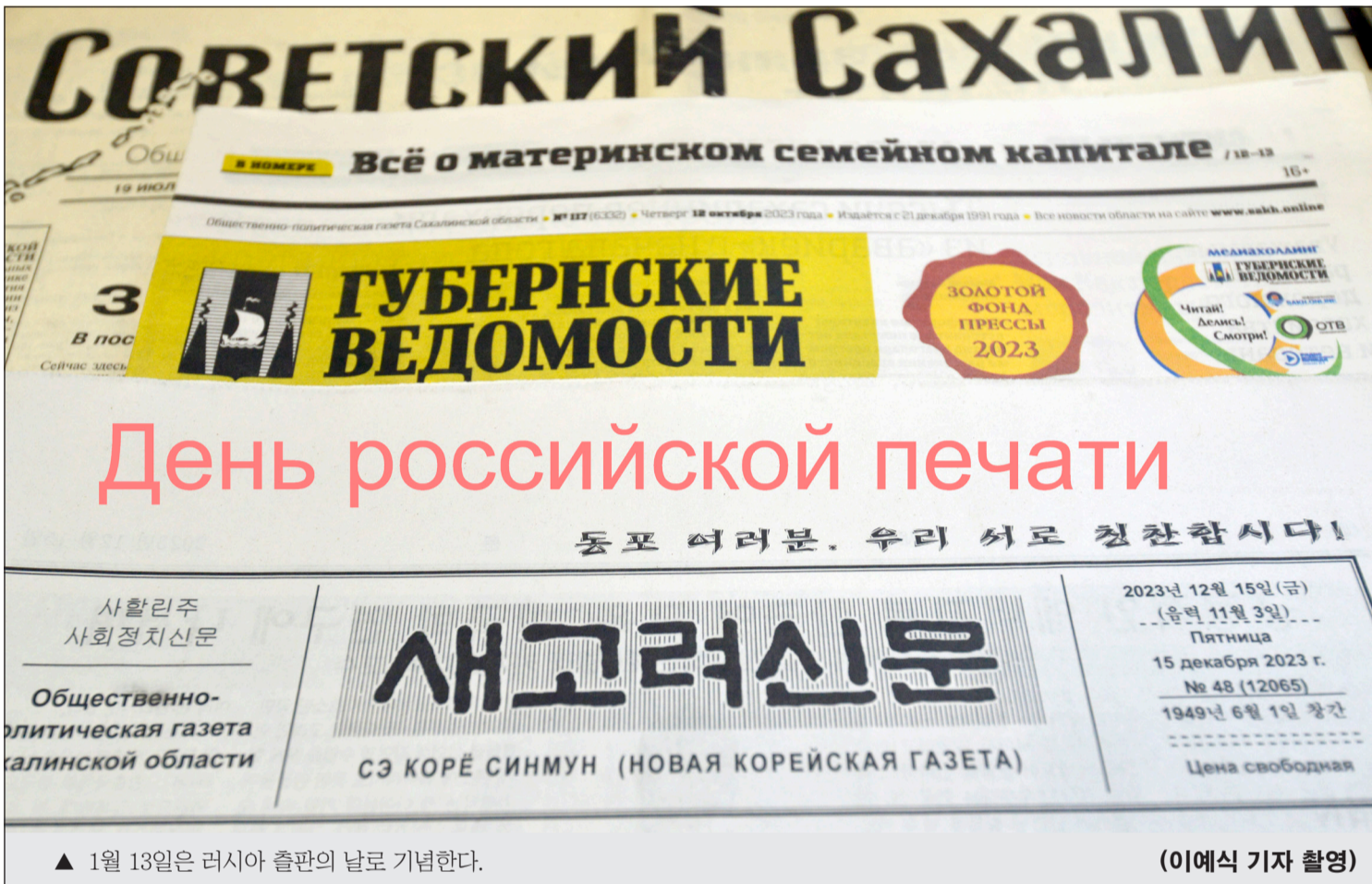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2024년 1월 12일(금) --(음력 12월 2일)-- Пятница 12 января 2024 г. № 1 (12068)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1월 13일은 러시아 출판의 날로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촬영)

###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의 언론인과 대중정보매체 직원 여러분!

러시아 직업 기념일인 '출판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요즘은 제때에 신용할 수 있는 정보들 없이는 우리의 생활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발행물은 향토 지역과 국가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 앞에 책임감 있는 이해와 객관성, 애국심, 재능, 온전한 헌신이 요구됩니다.

사할린의 대중정보매체는 독자들, 시청자들, 청취자들의 문제들을 담아내며, 사건의 과정 속에 존재하게 합니다. 또한 정부와 사회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을 단결시키며, 계몽적인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응당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수년 간 좋은 성과를 올리며 수고하시고, 젊은 동료들에게 모범이 되어주신 사할린 지역에서 은퇴하신 언론인들에게 감사드리며, 활동하시는 사할린의 언론인들에게는 새롭고 반짝이는 기획들과 날카로운 필치와 명확한 언어와 영감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번영과 강건함을 기원합니다!

출판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발레리 라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 발레리 라마렌코 주지사, 2024년 계획 사할린 지역 기업대표들과 논의

발레리 라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사할린 주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연합회 대표들과 만남을 가진 가운데 참석자들은 2023년의 총결산을 논의하고, 사할린주의 다양한 경제산업들의 향후 발전을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2019년에 사할린 지역에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금은 석유가스 분야에 62% 배당, 나머지는 기타 경제부문에 배당됐다. 총 투자액은 2천 380억 루블리이며, 현재 탄화수소 채취와 관련 없는 산업 분야에 66%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2023년 총결에 따라 총투자금은 전례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할린 지역에서 지역 생산 증가율은 연간 7%로 러시아 평균수치보다도 높았다. 석유가스산업, 석탄산업, 건설산업, 교통운송산업, 농산업 분야가 활발히 발전하고 있으며, 수산업단지는 향후 3년 내에 사할린에 3개의 대규모 수산물가공단지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 모든 것이 사할린주의 경제가 더욱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우리는 사할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더 큰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고 발레리 라마렌코 주지사가 밝혔다.

사할린주 선도적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조건은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이다. 주지사의 말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현재 소치에 있는 '시리우스'센터와 유사한 교육시설이 사할린에도 건설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과학, 스포츠, 예술을 배우게 된다. 또한 12세-18세의 학생들을 위한 유사한 교육시설이 유즈노사할린스크 '보스토크'센터를 거점으로 곧 운영하게 된다.

청년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이후 사할린주의 대규모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사회로 진출을 하게 될 거라 예상하고 있다. '사할린 테크' 캠퍼스 기반의 선진 공업학교 건립으로 수소연료 이용 및 혁신적인 생산기술 도입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사할린 주정부의 주도로 시행하는 맞춤형 정책이 연방 차원에서도 채택되었다.

'여성 사업가' 전국 사회단체 사할린 지부장인 타치야나 나드사진에 따르면 사할린 지역에서 여성 기업가들이 운영하는 사업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9월에 우리는 사할린에서 전 러시아 여성포럼을 개최했다. 최근에 여성 사업가 지원과 발전을 주제로 하는 콘퍼런스가 열렸는데 이 행사를 진행하며 많은 여성 사업가들이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국가지원정책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중요했다."고 타치야나 나드사진 지부장이 강조했다.

'기업과 공학'방면 전략주도청의 공적 대표인 예브게니 필리레예브는 사할린주에서 사업하기 위한 편리한 조건들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금 유입량도 증가하고 있고, 국내 투자유치 지역들 중 전국 순위에서 4위를 차지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는 사업가들의 문제에 정부의 관심과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 지역 지도부의 추진력에 있다고 했다.

긍정적인 사할린의 경험은 사업활동을 하는 전문가들과 연방의 다른 행정자치지역들 중 사업연합회 대표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단신

#### 사할린주에 의사와 교사 급여 10%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사할린주에 공공분야의 근로자 임금이 10% 인상되었다고 주정부 측이 전했다. 보건과 교육, 기타 복지 분야의 근로자들은 더 많은 근로임금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 공공부문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정책을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말에 교사들의 근로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이때 러시아 대통령은 국무원 회의에서 교사의 근로임금 시스템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 3년간 사할린에서 주택 <평방미터>150만m<sup>2</sup> 공사

사할린주가 주택 건설량의 높은 성과를 제시한 가운데 2023년에 사할린 지역에서 다세대 주택과 개별 건설 50만m<sup>2</sup> 이상을 건설했다. 이러한 속도로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서 주택들이 3년째 건설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에서 주택 150만m<sup>2</sup>를 건설했다. 이는 사할린주 기존 주택량의 10%에 해당된다.

"사할린 건설업계와 사할린 지역 연방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덕에 편안한 주택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벌써 3년 연속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50만m<sup>2</sup> 이상이 건설되고 있는데 수치상 1인당 1년에 1m<sup>2</sup> 이상이다. 이는 양호한 수치다. 우리는 발레리 라마렌코 주지사의 지시로 이러한 도약을 지속할 방침이며, 올해도 우리는 건설 속도를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사할린주 건설부 알렉세이 콜레와티흐 장관이 표명했다.

####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독감과 장염 감염 상황 발표

사할린주 러시아 소비자보호청이 2024년 1월 1일부터 7일까지 사할린주에 전염병 상황을 발표했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사할린 지역에 급성호흡기질환과 독감에 따른 감염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감염률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2024년 첫 주 기간 의료전문가들이 1,817명을 급성호흡기 질환 감염으로 기록했다. 그 가운데 B형, A (H3N2)형 이 A형(아형 없음) 독감이 발견되었고, 주민 중 7세 -14세의 연령층이 이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병원체 중에는 파라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라이노바이러스, 보카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메타뉴모바이러스가 우세했다.

사할린주에 급성장염 바이러스의 감염 상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학생들 중 34명이 급성장염으로 확진돼 전체 100%에 해당했다. 조성된 바이러스 그룹을 포함해 급성장염 단체감염은 등록되지 않았다.

# 2023년을 돌이켜보며

## 새고려신문에 게재된 사할린 한인 사회계의 크고 작은 사업 · 행사 · 사건

2023년에는 코로나 19의 제한에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벗어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수군사작전 진행으로 세계 정세는 변동하게 되었다.

사할린 한인들에게 있어 힘든 것 중 하나는 러시아와 한국과의 항공편 직항이 아직까지 없어진 것이다. 2023년은 사할린동포들에게 4월 1일 사할린주한인협회 임시회의로 좋지 않은 기억을 남겼다. 큰 갈등이 생긴 사할린 동포사회는 지금도 화합을 못하고 있다.

### (본사 편집부)

**1월 초** - 연초에 대한적십자사가 2022년도 사할린동포영주귀국 대상자를 위한 입국 안내문을 전했다. (본지 1월 13일호)

**1월 15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회장 림중환) 주최로 한인디아스포라 체스 경기 개최. (본지 1월 20일호)

**1월 17일** - 새고려신문사 주최 아래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기획 일환으로 최 빅토리아 작가와 만남 행사 진행. (본지 1월 20일호)

**1월 20일** - 200명이 모인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중환)의 공동주최로 음력설 행사 개최. (본지 1월 27일호)

**1월 21일** - 유즈노사할린스

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주한인협회(회장 오진하)의 주최 아래 설 행사가 진행. (본지 1월 27일호)

**1월 31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 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주한인협회 산하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실무그룹이 2023년 첫 모임 진행. (본지 2월 3일)

**2월 4일** - 음력설을 맞아 4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한민족예술과(과장 신 율리아)의 주최로 음력설 기념행사 개최. (본지 2월 10일호)

**2월 10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 호텔 대회의실에서 새고려신문사가 주최하는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기획의 일환으로 진 율리아 사할린동포 역사학준박사와 만남 개최. (본지 2월 17일호)

**2월 21일** - 국가 수호자의 날을 앞두고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에서 군병원(원장 남 위탈리)을 찾아 장교들에게 선물 전달. (본지 2월 24일호)

**2월 22일** -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의 3년 임기 만료. (본지 2월 17일호)

**2월 27일** -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열린 2023년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이에 1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이기욱 실무관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사업 설명. 2023년 영주귀국 대상 인원은 270명. (본지 2월 24, 3월 3일호)

**2월 28일** - 한국 행정안전부가 재외동포청과 국가보훈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으로 의결됐다고 밝힌 가운데 재외동포청이 2023년 6월에 출범. (본지 3월 10일)

**3월 1일** - 사할린 한국교육원 제10대 원장에 정승훈 전 교장 부임. (본지 2월 24일호)

**3월 4-5일** -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주내에서 많은 기념행사가 펼쳐진 가운데 여러 동포 단체들도 이날을 기념했다. (본지 3월 10일호)

**3월 11일** - 네벨스크시 스포츠 학교 체육관에서 주 씨름협회(회장 춘 알렉세이)와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오진하)의 주최로 제2회 사할린주 오픈 씨름 선수권대회 진행. (본지 3월 17일호)

**3월 12일** - 태권도 선수 1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 태권도 연맹 사할린주 태권도 협회(회장 안 수학)의 주최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오픈 태권도 (МФТ) 선수권대회가 개최. (본지 3월 17일호)

**3월 17일** - 가가린 호텔 대회의실에서 장태호 시인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과 만남을 가졌다. 행

사는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기획 일환으로 새고려신문사 주최, 가가린 호텔 지원 아래 진행. (본지 3월 24일호)

**3월 24일** - 사할린국립대 역사·어문·동양학 대학과(학장 임 엘 비라)과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오진하)가 공동으로 해마다 개최하는 한국에 관한 경시대회가 학생 14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의 교육과 사회'주제로 본대학 대강단에서 진행. (본지 3월 31일호)

**3월 25일** - 태권도 선수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르나도'스포츠 클럽(회장 이 파벨)이 사할린주한인협회회복 축제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열었다. (본지 3월 31일호)

**4월 1일** - 사할린동포사회를 훈련에 빠지게 한 사할린주한인협회의 임시회의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진행. 동포사회가 둘로 나뉘어 싸움이 터진 가운데 회의에서 오진하 회장 권한 종료, 박순옥 부회장 권한 계속 유지 결정. 많은 동포가 이 회의가 합법적인 가란 의문도 표명. (본지 4월 7일호)

**4월 3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호텔 대회의실에서 새고려신문사가 주최하는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할린에서 널리 알려진 바르드(음유시인) 한 세르게이(한경철)와의

만남 진행. (본지 4월 7일호)

**4월 8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모지나'문화회관 부근에 100여 명의 한인들이 모인 가운데 사할린주한인협회 오진하 회장 지지 야외 회의를 진행. 법에 따라 야외 회의 참가자는 제한돼 있음. (본지 4월 14일호)

**4월 15일** - 코르사코브 시 '오케안' 문화회관에서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코르사코브지역 한인디아스포라협회'의 주최로 '세대간 대화' 공연 개최. (본지 4월 21일호)

**4월 22일** - 코르사코브 지역 한인디아스포라협회(회장 이 블라디미르)의 회원들이 땅의 언덕을 찾아 사할린 희생동포기념 위령조각탑 현장에서 대청소에 나섰다. (본지 4월 28일호)

**5월 4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800여 km 떨어진, 사할린 최북단 도시인 오하 제7중학교에서 한국어, 한민족 문화와 관련된 행사를 펼쳤다. 이 행사는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학장 임엘비라) 교수와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소장 박상태) 대표가 뜻을 모아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본지 5월 12일호)

**5월 6일** - 5월 8일 아버지날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코르사코브 한인회와 아니와한인회에서 1세 어르신들을 모시고 명절 행사 개최. 사할린주한인협회 측에서는 주내 1세 동포 어르신을 위해 단체에서 398개 선물세트를 마련해 1세대 모두에게 선물 전달. (본지 5월 12일호)

(다음 호에 계속)

## 이 모 저 모

### 에카테린부르크의 주민, 사할린 무료 여행권 당첨

에카테린부르크의 주민 나탈리아 알레이니코와가 전 러시아 박람회장 전시회에서 사할린 여행권에 당첨됐다. 이제 나탈리아는 5일간 사할린의 환대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사할린 지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도 알게 될 거라고 <전 러시아 박람회장의 사할린> 텔레그램 채널이 전했다.

사할린주 전시관에서는 사할린의 역사와 문화 및 명소에 대한 퀴즈대회를 열어 그 결과 성적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2인 무료 여행권을 증정하는데 행운의 블라임드 추첨을 통해 에카테린부르크의 주민이 당첨된 것이다. 나탈리아 알레이니코와는 여행에 대한 설레고 들뜬 기분과 사할린 주민들과의 따뜻한 교제와 사할린주의 문화와 생활과 전통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할린 여행권 추첨은 <사할린에서 당신의 신나는 겨울> 행사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이 행사는 사할린주 관광부가 주최한다.

### Жительница Екатеринбурга выиграла бесплатную путевку на Сахалин

Жительница Екатеринбурга Наталья Алейникова выиграла на стенде ВДНХ путевку на Сахалин. Теперь на протяжении 5 дней она будет наслаждаться сахалинским гостеприимством, неопишуемой красотой природы, знакомиться с историей и традициями региона, сообщает Telegram-канал «Сахалин на ВДНХ».

На стенд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а разыграна бесплатная путевка на двух человек по итогам успешного прохождения викторины на знание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ы и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островов. При помощи слепого жребия Фортуна выбрала жительницу Екатеринбурга.

Наталья Алейников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ожидает от поездки ярких эмоций, теплого общения с сахалинцами, знакомства с культурой, бытом и традициями области.

Розыгрыш путёвки на Сахалин состоялся в рамках акции «Твоя яркая зима на Сахалине».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но Министерством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독서하는 가정 경연 열려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온 가족을 도서관으로> 기획의 일환으로 <책 읽는 엄마 - 책 읽는 나라> 가족 경연대회가 열렸다. 경연에는 자녀를 둔 9명의 지역 어머니들이 참가했다. 경연대회에서 알렉산드르 푸쉬킨과 이완 크롤로브, 코르네이 추콥스키, 보리스 자호제르, 에두아르드 아사도브 등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낭독했다고 주 도서관 측이 전했다. 어머니들의 낭독 공연을 4명으로 구성된 권위있는 심사위원들이 평가했다.

평가되는 항목은 표현력 있는 낭독기술 능력, 아이의 관심 환기력, 낭독의 독창성, 예술성과 규정 준수였다. 경연은 참가자의 낭독과 오락프로그램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또한 어린이들은 두터운 도화지에 메달 그리기 활동교실에 참여했다.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конкурс читающих сем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сей семьей в библиотеку" состоялся семейный конкурс "Читающая мама - читающая страна". Участницами конкурса стали девять местных жительниц с детьми.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розвуча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Александра Пушкина, Ивана Крылова, Корнея Чуковского, Бориса Заходера, Эдуарда Асадова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автор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ОУНБ.

Выступления участниц оценивало компетентное жюри, состоящее из четырех человек. Критерии значились следующие: владение техникой выразительного чтения, умение заинтересовать ребенка, оригинальность исполнения, артистизм и соблюдение регламента.

Конкурс состоял из двух частей: выступлений участниц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Дети поучаствовали в мастер-классе по рисованию медальона на акварельной бумаге.

### 노글리키 지역에 3 북방 소수민족어로 된 러시아 전래동화책 발표

노글리키 지역 왈 마을에서 <아동을 위한 고유어> 도서관 기획 발표회가 진행됐다. 기획 주최자들은 북방 소수민족의 언어로 된 전래동화책을 출판했을 뿐만 아니라 전래동화의 작품을 재미있게 발표할 수도 있었다고 노글리키 중앙도서관 시스템의 홍보부가 전했다. '이 기획의 실행은 노글리키 지역에서 시작되어 치르-운부드 마을과 왈 마을에서도 계속되었다. 노글리키에서 독자들은 낯설어 어린 예술가들이 세심하게 준비한 공연을 보았고, 치르-운부드 마을에서는 성인 배우들이 공연을 상연했다. 왈 마을에서는 공연을 위해 아이들이 가면을 가지고 역할극을 선보였다.

이 기획의 주최자 중 나탈리아 상기는 관객들에게 조상들의 기억을 수호하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소수이지만 재능있는 윌타족과 님프족 역사의 조각들을 모으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승시키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 В Ногликском районе презентовали книгу русской народной сказки на языках КМНС

В селе Вал Ногликского района прошла презентация библиотечного проекта "Родной язык малышам". Создатели проекта не только издали книгу русской народной сказки на языках КМНС, но и смогли интересно представить свою работу,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Ногликской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й библиотечной системы.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началась в Ногликах, продолжилась в селе Чир-Унвд и селе Вал. В Ногликах читатели увидели тщательно подготовленный спектакль юных артистов на нивхском языке. В Чир-Унвд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устроили взрослые актеры. А в селе Вал на презентации дети выбрали маски и разыграли сказку по ролям.

Один из создателей проекта Наталья Санги поведала читателям о хранителях памяти предков. О людях, которые собрали по крупицам историю маленьких, но талантливых народов нивха, уильта и передают это своим потомкам.

(8면에 계속)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소원의 울카'행사 참가자와 통화

1월 9일(화)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신 크리스티나에게 전화를 걸어 2024년 새해를 축하했다.

성탄절에 대통령이 바이칼을 방문하는 것이 꿈인 소녀의 소원을 이루어준 것이다.

대통령은 '러시아 청년. 자선' 방면의 지원 속에 '최고들의 활동'으로 조성된 <소원의 울카> 전 러시아 활동의 일환으로 새해 선물을 선사했다.

신 크리스티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푸쉬킨 1호 김나지아 2학년생이다. 8세의 소녀는 유년의 대열에 올랐고, 스포츠 에어로빅 주재 경기에서 상을 수상했다. 스포츠 활동은 크리스티나가 '아틀리츠노(최고)' 점수로 공부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는다. 크리스티나는 학생 올림픽아드를 준비할 시기에 백과사전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제 전시-포럼 행사장에 설치된 새해 울카에서 '우리 함께' 국민참여 포럼의 일환으로 크리스티나의 소원카드를 울카에서 떼었다.

대통령은 전화통화 중 크리스티나에게서 여행이 어땠는지를 알게 되었다.

국가의 수장은 여행을 통해 소녀가 받은 깊은 추억에 관심을 가졌고, 대통령이 직접 여행한 바이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크리스티나는 무엇보다 박물관이 마음에 들었다며, 현미경을 통해 지역 식물계를 연구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자리에 함께 한 크리스티나의 부모 신 로만과 송 아나스타시야와도 대화를 나눴다. 아나스타시야는 바이칼에서 여행 프로그램은 아주 유익했고, 가족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흥미로운 여행을 조성한 조직 측에 감사를 표했다. 신 로만도 극동지역의 소식들로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는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도시에 공항 청사가 운영되어 더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크리스티나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소중한 꿈을 이루어준 데 감사를 표하며, 대통령의 모든 꿈도 이뤄지길 기원했다.

"저의 꿈을 이뤄주셔서 대통령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와 성탄절을 축하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대통령의 모든 꿈들이 이뤄지길 바랍니다."라고 신 크리스티나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크리스티나에게 학업에서 성과와 계획과 목표가 실현되길 기원하며

"새해에는 너가 하는 모든 것에서



만족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며, 학업에서, 스포츠에서, 너의 취미에서 최고가 되길 바라고, 모든 것이 너에게 아주 잘 되길 바란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말했다.

시베리아 여행과 바이칼을 탐색하는 데는 며칠이 소요됐다. 크리스티나는 가족과 함께 바이칼 호숫가에 위치한 리스트반가, 바이칼스크, 우톨릭을 방문하고, 이르쿠츠크주의 상징적인 명소들을 찾아갔다.

어린 사할린 소녀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탈썬' 야외 문화인류학 박물관과 네르피나리, 샤만-갸나(샤만-바위)의 전망대를 둘러보았다. 또한 바이칼 박물관을 방문해 특별전시관에서 크리스티나는 호수의 식물이 있는 11개 아쿠아리움을 구경하고, 가상현실 체험으로 잠수함 모형에서 바이칼 호수의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었다. 여가 시간에 크리스티나는 성탄 거리축제에도 참가하며, 스케이트를 타고, 개썰매도 즐기며, 시베리아의 숲을 산책하고, 바이칼 얼음 호수 위로 나가보기도 했다. 여행하는 동안 크리스티나는 추위 할아버지와도 만나고, 폭신한 바다표범 인형을 기념 선물로 받았다.

전 러시아 '소원의 울카' 행사의 목적은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새해의 마법과 기쁨을 선사하는 데 있다. 이 행사는 2018년부터 러시아 연방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선한 일을 만들어줄 준비가 된 수천의 사람들이 연합해 활동하고 있다. 5년간 이 활동의 진행으로 10만7천 개의 소원이 이뤄졌다. 이 행사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이 활동의 주최자들은 행사 참가에 10만 개 이상의 신청서를 받았다. 행운의 대상자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특수군사작전에 참전했던 또는 참전하고 있는 군인 및 동원병 가정의 자녀들이다.

이외에도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은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꿈을 이루는 데도 참여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소원의 울카>는 다른 가족들에게 기쁨과 마법을 선물하고자 하는 가정들을 연합시키고 있다.

올해 이 행사는 '최고들의 활동'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2개 방면의 사업과 11개의 공동가치 중 '생명과 존엄', '애국심', '선과 정의', '창조적인 일', '탄탄한 가정' 기타 등등의 것을 확고히 주장하고 있다.

(사할린주정부 홍보자료에서)

## 문예콩쿠르 2023 대상

### 한국 교육원이 제 삶에 준 변화

'...우리가 살았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듯이 세월은 그렇게 내 나이를 더해만 가네...'

-박상민-

한국말을 저는 어머니의 찢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들은 첫마디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9 형제자매들 중에 막내였는데 (아버지 52세, 어머니 44세) 부모님은 러시아말을 거의 안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양반 가족에서 태어나시고, 오빠와 남동생 3남매 중에서 외동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아이들을 공부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독학으로 글을 열심히 배우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어머니가 베개 밑에 공책 두 권을 소중히 보관해 두시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공책에 심청전과 춘향전을 베껴 쓰셔서 자녀들이 커서 집을 떠났을 때 그 소설을 읽고 또 읽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선 학교에서 6학년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후에 조선학교가 폐쇄되어 러시아 학교로 옮겼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에 러시아어 및 한국어, 5학년부터는 영어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사범대학에 영어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교과목 영어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적이 없는 조선 사람을 사범대학에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지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1년 후 공부하러 노보시비르스크시에 갔습니다. 어머니하고는 늘 한국어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후에 50년 정도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한국교육원에서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알고 가봤습니다. 고급반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박혜신 선생님이 수업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아주 착하고, 친절하고, 속이 깊은 분이셨습니다. 그 수업을 참 재미있게 듣고 다녔습니다.

학년 말에 선생님은 우리가 쓴 숙제들을 모아서 아름답게 꾸며서 우리에게 선물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물해야 했었는데...

그날에 학년의 마지막 날을 다같이 기념하며 파티를 했습니다. 그 후로 가정 상황으로 인해서 떠나야 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선생님에 대한 따뜻한 느낌은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고급반이 폐쇄되어 안타깝습니다.

현재는 한국문화원 주부반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수업은 설립화 선생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두 시간 짜리 수업인데 첫째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두 번째는 노래방처럼 한국가요를 배웁니다. 쉬는 시간에 차를 마시면서 이말 저말을 나눕니다. 주로는 외로운 아줌마들이 수업을 다닙니다. 각각 되돌아보면 기나긴 인생이 지나갔습니다. 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항상 바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거리를 열심히 달리가 갑자기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이 커서 떠나고, 멀어졌습니다. 때론 우리가 불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물론 몸에 아픈 것도 그렇고, 각각 혼자서 자기 불편함을 가지고, 자기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반 수업은 그냥 공부뿐만 아니라 외로운 마음의 교제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기쁨도 고민도 나눠줍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도 큰 역할을 하십니다. 긍정적이고 유머 감각이 좋으십니다.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입니다.

우리가 러시아 학교에서 공부해서 한국 문학을 잘 모릅니다. 주부반을 다니면서 한국의 어떤 시인들을 알게 돼서 시를 외웠습니다. 김소월의 "진달래 꽃", "못잊어", 윤동주의 "서시", 나태주의 "멀리서 본다", 김

림복희, 72세, 은퇴자 (화학공학 기술자) 춘수의 "꽃", 김광섭의 "저녁에",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많은 속담을 (100개도 넘게)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한국 속담을 들으면 머릿속에서는 바로 러시아어 속담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что посеешь, то и пожнешь);

꼬리가 길면 밟힌다 (сколько веревочке не виться — концу быт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после драки кулаками не машут);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и на старуху бывает проруха);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подливать масло в огон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паны дерутся — у холопов чубы трещат);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когда тонешь, и за соломинку хватаешься);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 (вода камень точит).

나라, 언어, 문화, 문학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원에 부지런히 방문하는데 벌써 두 달이나 선생님이 없어서 우리는 집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 연습할 일이 없어서 힘듭니다. 가끔씩 딸(사할린국립대학 한국어과 졸업, 부산 동서대학 졸업)하고 아니면 반 친구들과하고 (금속에서 산책할 때) 한국말로만 대화하기도 하는데 몇 문장을 하고 다시 자연스럽게 러시아어로 넘어갑니다. 습관이 되어서요.

한국방송을 통해서 대화법을 좀 배웠습니다. KBS 채널을 보면서 영화, 드라마를 참 재미있게 봤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러시아에서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다큐멘터리도 보면서 한국 일반 사람들의 일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속담도 영화에서 가끔 나옵니다.

"불후의 명곡"을 보기 참 좋아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유명한 한국 가수들, 배우들, 작곡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수봉, 백지영 가수의 감성이 있는 노래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조현용 경희대 교수님이 쓰시는 "새 고려 신문"의 칼럼을 재미있게 읽곤 합니다. 물론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번역해서 계속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친하게 지내세요", "천국이 따로 없다", "토끼는 토끼다" (내가 토끼피여서 그런지), "양반춤을 추는 사람" 기사들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읽으면서 어머니가 친구들과 생일날에 우리 집에서 춤을 추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일은 1960년대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원 근처에 소비에트 연방의 영웅인 김용철 (김 예브게니 이바노비치) 첩자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예브게니 이바노비치의 형 김용한 선생님은 전에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브게니 이바노비치는 평생 국민을 위해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 니콜라이 오스트로프스키의 '강철이 굳어지는 법'이라는 소설 중 다음 말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괴로이 아프게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은 신기하게 윤동주의 '서시'의 시구와도 비슷하게 들립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общался по телефону с участницей акции «Ёлка желаний»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9 января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здравил Крестину Син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поздравил ее с наступившим 2024 годом. В Рождество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исполнил мечту девочки: школьница побывала на озере Байкал. Новогодний подарок Президент сделал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Ёлка желаний»,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Движением Первых при поддержке направления Росмолодёжь. Добро.



Кристина Син учится во втором классе гимназ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восемь лет девочка уже получила первый юношеский разряд и даже стала призером област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спортивной аэробике. Но спорт не мешает ей учиться на «отлично». Так, про самое глубокое озеро в мире Кристина узнала из энциклопедии во время подготовки к школьной олимпиаде и сразу же захотела увидеть его своими глазами.

Открытку с желанием Кристины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снял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гражданского участия #МЫВМЕСТЕ с новогодней ёлки, установленной на площадк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и-форума «Россия».

О том, как прошла поездка,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узнал у самой Кристины во время разговора по телефону.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интересовал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девочки от путешествия и расспросил про свои поездки на Байкал. Школьница призналась, что больше всего ей понравился музей, где она при помощи микроскопа изучала местную флору.

Также в разговоре с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родители Кристины – Роман Син и Анастасия Сон. Анастасия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е государства, что программа путешествия на Байкал была очень насыщенной и их семья многое успела посмотреть. Она также поблагодарила организаторов за интересную поездку. А Роман Син поделился с Президентом новостями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его словам, Южно-Сахалинск быстро развивается и становится лучше: недавно в городе открыли новый аэропорт.

Кристина также поблагодарил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за исполнение ее заветной мечты и пожелала, чтобы все мечты Президента тоже осуществлялись.

– Я хотела сказать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за то, что вы исполнили мою мечту. Также хочу вас поздравить с Новым Годом и Рождеством, хочу пожелать здоровья, счастья, и чтобы все ваши мечты тоже сбывались, – сказала Кристина Син.

В конце разговора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желал девочке успехов в учебе, реализации планов и целей.

– Я хочу пожелать самого доброго в новом году, успехов в учебе, в спорте, в твоих увлечениях, чтобы ты получала удовольствие от всего, что ты делаешь и добивалась хороших результатов. Всего тебе самого доброго, – подчеркнул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Сибири и знакомство с Байкалом заняло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Вместе с семьей Кристина посетила Листвянку, Байкальск и Утулик,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на побережье Байкала, а также увидела знаковы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Юная сахалинка побывала в самом большом в России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м

музее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Тальцы», Нерпинарии и на смотровой площадке у Шаман-камня. Также гост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сетили Байкальский музей, где на специальной экспозиции Кристина увидела 11 аквариумов с флорой озера и даже смогла виртуально спуститься на дно Байкала в стилизованной субмарине.

В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девочка участвовала в рождественских уличных гуляниях, покаталась на ледяных и собачьих упряжках, прогулялась по сибирскому лесу и даже вышла на лед Байкала. Также во время путешествия Кристина встретила с Дедом Морозом и получила памятный подарок – мягкую игрушку-нерпу.

Кристина стала третьим участником новогодней акции в 2023 году, желание которого снял с ёлк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Ранее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существил мечты Ксении Мазневой и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которая попробовала себя в роли ведущей телепрограммы «Новости» на Первом канале, и Никиты Миросниченко из Костромы, который побывал на экскурсии в Эрмитаже.

Цель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Ёлка желаний» – подарить радость и ощущение новогоднего волшебства детям, оказавшим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Она реализуется с 2018 года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бъединяет тысячи людей, готовых творить добрые дела. За пять лет проведения акции было исполнено 107 тысяч новогодних желаний. Акция проходит с 15 ноября 2023 года по 28 февраля 2024 года.

Организаторы акции получили свыше 100 тысяч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Среди благополучателей – дети из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х семей и дети из семей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и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принимающих, либо принимавших участие 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Кроме того, дети и их семьи участвуют в акции не только как мечтатели, но и как исполнители. Таким образом, «Ёлка желаний» объединяет семьи, которые хотят подарить радость и волшебство другим семьям.

В этом году акция проходит под эгидой Движения Первых. Оно утверждает 12 направлений работы и 11 общих ценностей, среди которых «Жизнь и достоинство», «Патриотизм», «Добро и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Созидательный труд», «Крепкая семья» и другие. Среди основных миссий участников – «Быть с Россией», «Быть человеком», «Быть вместе», «Быть в Движении», «Быть первыми».

Деятельность движения направлена на организацию досуга, создание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всестороннего развития и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а такж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ориентацию детей.

Вступить в движение можно с шести лет. Участниками могут быть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е, обучающиеся по программам начального общего, основного общего,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 Поправки к Специальному закону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20 декабря 2023 г. на заседании Парлам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ыли приняты поправки к Специальному закону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газете «Сэ коре синмун» за 29 декабря 2023 г. на эту тему была опубликована статья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ИН Че Сан Гу, где он дал свои комментарии. В интернете и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разные версии перевода этой статьи.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перевод статьи, выполненный Ким Тхе Ик, з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МОО ОСК (меж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сква).

### О принятии поправки к Специальному закону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19 сентября 2022 г. группа депутатов (10 чел.) во главе с депутатом Ли Мен Су внесла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проект поправки под №17406 в Спец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21 сентября 2023 г. поправка была одобрена комитетом по иностранным делам и 20 декабря была принята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411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Основное содержание поправки: ▲ обязательные обследования ▲ расширение определения «сопровождая семья» -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изменено на «прямые потомки» ▲ создание базы для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местными органами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Поправка по пункту проведения обследований обязывает следующее -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олжно проводить каждые 2 года обследования для определения условий проживания и други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семей, возвратившихся в Корею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 целях расширения круга репатриантов формулировка «супруга и прямой потомок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 Корею вместе с сахалински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м» изменена на «супруга и дети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возвращающегося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 Корею вместе с сахалински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м».

Однако «в случае отсутствия (смерти) детей и их супруга(и), «сопровождаящими членами семьи считаются один прямой потомок и его супруга(а)».

Статья 8 введена дополнительно как вышестоящее положение для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Определено, что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могут устанавливать законодательно свои положения для поддержки условий проживания и адапт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семей».

Поправка расширяет список лиц, получающих поддержку на переезд на ПМЖ, и этот факт можно только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но большой круг людей остается «в слепой зоне» поправки Спецзакона, не попадает в список лиц для переселения.

Несмотря на заявление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в ходе рассмотрения Спецзакона о том, что все потомк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будут включены в список репатриантов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живы «сахалин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или нет, после принятия Спецзакона и в ходе принятия исполнительных решений по реализации Спецзакона, МИД РК признал, что потомки умерших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е входят в список лиц, получающих поддержку о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ля переселения по Спецзакону. В связи с принятием Спецзакон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еоднократно направляла обращения петиции, что ограничение списка лиц только потомками здоровствующих родителей является антигуманным – одна категория лиц как бы дважды получает господдержку, а другая (семьи умерших родителей: для краткости - 2-е поколение умерших родителей) оказываются в совер-

шенно неравноправном положении. Исключенными из списка лиц Спецзакона являются дети одиноко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ю лиц (родившиеся до 15 августа.1945 г. и приехавшие как супруга с мужем 1-го поколения, который умер уже в Корею) и 2-е поколение умерших на Сахалине родителей.

По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РО-ОСК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живает 530 человек 1-го поколения, 2-ое поколение составляет примерно 5тыс, из них около 3500 человек, у которых родители умерли. Среди них желающих переехать на ПМЖ в Корею около 2000-2500 чел. Поправка в Спецзакон должна была прежде всего уделить внимание этим людям.

Среди корейцев 1900-1920 гг. рождения, которые были насильно мобилизованы, в 90-е годы, на момент начала репатриации в 1990 годы, уже оставалось в живых совсем немного.

Действующий Спецзакон определяет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о дате 15 августа 1945 г.. И к ним относятся как лица 1-го поколения, так и часть 2-го поколения. Принятая поправка включает в список лиц Спецзакона всех детей ныне здоровствующих са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о 2-е поколение умерших родителей – ни их умершие родители не смогли, ни они сами не входят в список лиц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согласно Спецзакону. А вот те, кого можно условно назвать их племянниками, 3-е поколение, попадают в список лиц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Репатр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е смогла состояться в период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и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по возвращению на родину как минимум 2-го поколения. Поэтому,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живы или нет родители 1-го поколения, их дети 2-го поколения должны быть включены в список лиц Спецзакона.

Между тем в процессе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ыявляются вопросы поколения детей, требующие решений и поддержки. Если в отношении лиц +65 вопросы в какой-то мере улажены, то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в процессе получ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оказывается в незнакомой ситуации и не имеет в окружении людей, оказывающих необходимую помощь. В отличие от старших поколений у них проблемы с языком общения. Кроме того, после 3-х летнего льготного периода им предстоит устроиться на работу, на языковая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подготовка н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Также расширение списка переезжающих лиц по Спецзакону требуе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из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бюджета. Первоначально число людей, имеющих право на репатриацию согласно Спецзакону составляло ежегодно 350 чел., в этом году оно было сокращено до 270 чел. В таком случае есть ли смысл в расширении списка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няло на себя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о проведен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был принят Основной закон по зарубежным корейцам, создано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Всеми этими действия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возгласило план по проведению политики поддержк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ереживших исторические трудности.

Не теряем надежды, что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м корейцев займет активную позицию и предложит поправку к Спецзакону о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х, которая устраним «белые пятна» в Спецзаконе о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х. «Слепые пятна» в отношении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ПМЖ в Корею должны быть устранены, и должна бы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а более дет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для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переезжающего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21 декабря 2023 г.  
Всемирное сообщество коре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конча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В РК будет создано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е агентство

В РК появится новый центральный орган, который будет координировать развит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смической программы. 9 января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утвердило пакет законопроектов, касающихся созд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Оно будет подчинятьс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резиденту страны и координировать работу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подчинение нового органа будут переданы два научных учреждения – Корейский институт аэрокосм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Корейский институт астрономии и косм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 агентстве, которое начнёт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мае-июне этого года в городе Сачхо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около трёхсот человек.

## В РК продолжается развитие технологи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конце 2022 года миру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GPT-чат, ставший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быстрого развития технологи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Сегодня они активно входят в нашу повседневную жизнь.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используются, в частности, во время концертов K-POP. На концерте одной из групп у сцены установлена небольшая камера. Она не только фиксирует выступление в целом, но и ведёт съёмку каждого участника группы в отдельности, запоминая выражение лица и движения.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о, благодаря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интеллекту, который делает концерты более красочными и запоминающимися. Прежде монтаж таких съёмок занимал около часа, а сейчас для этого требуется не более 10 минут. Представитель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и KBS Ли Юн Чжэ отмечает, что монтаж таких видео – очень сложная работа, которую сотрудники стараются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избегать. Технологи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облегчили этот труд, взяв на себя наиболее сложные процессы. Помимо этого,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может легко анализировать и представлять в понятной форме содержание письменных документов.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оявились версии специальных приложений для смартфонов и ноутбуков. По прогнозам, в 2027 году южнокорейский рынок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превысит 4 трлн вон (3 млрд долларов). Между тем, стремительное развитие отрасли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возникновению социальных противоречий, решение которых является важной задачей. Помимо опасений о сохранении рабочих мест, продолжают споры по поводу авторских прав в сфер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Профессор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передовой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KAIST) Ю Чхан Дон отмечает, что решение данной проблемы является первоочередной задачей.

## Стоимость проезда в метро Сеула увеличится до 1.550 вон

Мэрия Сеула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вышения в июле этого года базовой стоимости проезда в столичном метро на 150 вон (0,11 доллара) до 1.550 вон (1,18 доллара). Повышение тарифа произойдёт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официальным запуском единого месячного проездного билет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которого в пилотном режиме начнётся 27 января. В август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ланировалось повысить базовую стоимость проезда в метро на 300 вон, но она была повышена в октябре на 150 вон.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о новом тарифе будет принято после консультаций с властями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и города Инчхона.

## Инфляция затронула ведомственные столовые

В связи с ростом цен на услуги ресторанов корейцы всё чаще обедают в небольших ведомственных столовых, которые компании открывают для своих сотрудников. Обычно они отличаются более низкой стоимостью обедов. Однако инфляция затронула и их. По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9 январ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цены в ведомственных столовых выросли на 6,9%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Это максимальный рост с 2001 года, когда началось ведени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статистики. Это выше роста цен в заведениях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составившего 6%, а также на обработанные пищевые продукты – 6,8%. Ситуацию объясняют такими факторами как общий рост стоимости сырья и увеличение расходов на оплату труда. Сохранение прежнего уровня стоимости обедов неминуемо приведёт к падению их качества.

## Количество просмотров Gangnam Style на YouTube превысило 5 млрд

30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имерно в 15 часов количество просмотров музыкального видео Gangnam Style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евца PSY на платформе YouTube составило 5 млрд 300 тыс. Gangnam Style стало первым музыкальным видео K-POP с таким показателем. Сам PSY выразил радость в связи с этой новостью, напомнив, что изначально мечтал о 50 миллионах просмотров. Музыкальный клип Gangnam Style был выпущен 15 июля 2012 года. То есть, на достижение пятимиллиардного показателя потребовалось более 11 лет. **RKI**

## Ким Чен Ын отказался от идеи объединения с Южной Кореей

В воскресенье 31 декабря 2023 г. СМИ КНДР сообщили о завершении Пленума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который продлился пять дней. В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день с докладом выступил лидер Страны чучхе Ким Чен Ын. Хотя многие зарубежные СМИ и издания первоначально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в основном на обещания Пхеньяна запустить в новом году еще три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х спутника, главной сенсацией были совсем иные заявления вождя. Ким открыто и прямо заявил, что Пхеньян отныне не намерен пытаться добиваться объединения с Южной Кореей, а отношения будут строиться с ней как с обычной другой страной, причем враждебной. Это означает отказ от линии на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что является без преувеличения сменой всей стратегии действий КНДР в отношении "собратьев по крови" на Юге. Судя по всему, так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треагировала на крайне проамериканский и враждебный курс нынешн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 Юн Сок Ёлем.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Ким Чен Ын стал постепенно отходить от своей же практики новогодних речей, которые произносил утром 1 января и где обозначал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и задачи развития государства на новый год. Эту роль стали выполнять доклады Ким Чен Ына на расширенных пленумах ЦК партии, которые теперь проходят как раз в последних числах декабря. Высказывания вождя на этом мероприятии потом публикуются (как минимум выборочно) в центральной печати КНДР, заучиваются населением Страны чучхе наизусть.

Так произошло и на этот раз. С 26 по 30 декабря в Пхеньяне состоялся 9-й Пленум ЦК ТПК 8-го созыва, на котором, как сообщил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МИ, "с гордостью" подводились итоги 2023 года и определялись направления и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партии и государства на 2024 год.

Судя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на пленуме было сказано немало, хватает и принятых весьма важных решений, которые сейчас тщательно анализируют зарубежные эксперты в самых разных странах. Вместе с тем, на этот раз можно говорить о провозглашении коренного разворота в подходе КНДР к Южной Корее и проблеме объединения, о чем лично сообщил Ким Чен Ын.

Многих политиков и госслужащих зачастую обвиняют в том, что свои мысли и мнения они оборачивают в такие витиеватые формулировки, что непросто понять, что именно человек хотел сказать, а потому экспертам приходится затем давать своего рода "перевод на понятный язык". Однако стоит признать, что Ким Чен Ын, выступая с заключительным докладом на пленуме ЦК партии, не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такого недостатка. Всего его мысли и послы были четки, ясны и весьма прямы.

"Наша партия пришла к выводу, что никогда не поя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достичь объединения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которая сделал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ой объединение на основе поглощения и единообразности системы. Это противоречит нашему курсу по объединению Отечества на основе принципа "один народ, одно государство, две системы", – процитировало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слова вождя.

Ким добавил, что в Южной Корее, несмотря на смену правительств и правящих партий, где обычно конкурируют обычно два лагеря – настроенные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КНДР "прогрессивные демократы" и более жесткие к Пхеньяну и проамериканские "консерваторы" – никакой разницы в подходе Сеула к объединению не наблюдалось.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указал, что КНДР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тали друг для друга "враждеб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а политика Севера в отношении Юга больше не должна исходить только из того, там проживают одноплеменник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были названы "приспешники колониаль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ША, а потому обсуждение с ними вопросов объединения 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национальному достоинству и статусу КНДР. "В том месте, что сегодня называется Южной Кореей, политика полностью исчезает, все их общество погрязло в культуре янки. Это всего лишь колониальное зависимое государство, которое полностью опирается на США в вопросах обороны и безопасности", – добавил он.

Ким резюмировал, что реальность вынуждает Пхеньян заново определить собственный подход к межкорейским связям. Исходя из этого послы, как сообщил вождь, будут произведены радикальные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реформы в структуре органов, которые до сих пор курировали южнокорей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политики КНДР.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как выше было сказано, на пленуме партии Ким поставил и другие задачи, включая запуск трех новых военных спутников, дальнейшее производство и развитие ракетно-ядерных арсеналов, разработка мощных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средств радиоэлектронной борьбы. Армии и народу было

также дано указание готовиться к возможному ядерному кризису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целях форсирования подготовки к такому великому событию как взятие КНДР под контроль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В отношении США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пообещал занять в 2024 году "наступательную и сверхмощную" позицию, осудив размещение Вашингтоном своих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сил и средств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а также его совместные учения с Сеулом. Подчеркнута была готовность без колебаний предпринять против США и РК "критические действия с помощью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 случае продолжения союзниками курса на военную конфронтацию.

Тем не менее все эти "страшилки" в адрес США, Южной Кореи, а также заявления о наращивании "ракетно-ядерного щита и дубины" являются для практики Пхеньяна уже привычным делом и выполняют роль тезисов тактического уровня. Главное ж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пленума – это отход от линии на объединение и признание Южной Кореи 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просто другим государством и народом.

Комментируя выступление Ким Чен Ына на пленуме ЦК партии, известный эксперт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офессор сеуль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унмин Андрей Ланьков, назвал доклад вождя "возможно даже самой важной из всех новогодних речей Ким Чен Ына". "Заявление о нарастающей военной угрозе как раз особого интереса не вызывают, что-то тако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руководители говорят несколько раз в год и практического значения такие высказывания обычно не имеют. Не стал бы я переоценивать и важность замечания о том,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будет выводить на орбиту новые военные спутники. Ч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нтересно в речи – это то, как говорится об отношениях с Южной Кореей... Очень похоже на то, что мы присутствуем при глобальном развороте стратегии Севера в отношении Юга и последствия такого разворота будут ощущаться в течение десятилетий", – отметил эксперт в комментарии для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ы".

Далее специалист пояснил в чем отличия задекларированной Ким Чен Ыном линии от предыдущего подход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чти 80 лет, которые прошли с момента раскола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бе Кореи постоянно подчеркивали, что разделение является временным явлением, что корейцы являются одной нацией и что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им надо объединиться. Вместе с тем, так лишь говорили, но понимали, что мир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объединения достигнуть сложно и всерьез к таким идеям не относились. А вот варианты с возможным насильственным присоединением соседа как Югом, так и Севером рассматривались всегда. Однако на этот раз Ким Чен Ын заявил,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больше не мож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 Юг как партнера в борьбе за объединение. Он сказал, что отныне отношения Юга и Севера стоит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отношения двух враждебных государств, находящихся в состоянии вооруж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При этом в его речи нет более следов противопоставл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а такое противопоставление было достаточно обычным: ког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га называли марионетками США, а с народом, отмечалось, нужно иметь дело и добиваться объединения. Иначе говоря, в этой речи Ким Чен Ын сказал, что Юг – это другое государство и это государство враждебное.... Фактически это может означать переход к восточногерманской модели, когда ГДР постоянно подчеркивала, что Западная и Восточная Германия – это два разных государства, там живут два разных народа и задача объединения формально не ставилась. Похоже, что такой переход происходит 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 сказал он.

Необходимо также отметить, что намеки на выработку нового подхода со стороны Пхеньяна уже появлялись. Тогда, напомним, внимание привлек тот факт,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лица стали для описания Юга использовать то название, которое южане применяют сами для сво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Ранее же КНДР называла Юг иным словом - "Намчосон", которое можно образно перевести как "южная часть нашей Кореи". Но теперь используется чис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й вариант и, похоже, все это возведено в ранг офи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Это же отметил и Андрей Ланьков.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с лета 2023 г. и в выступлениях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лиц КНДР, включая младшую сестру Ким Чен Ына Ким Ё Чжон, и в официальных документах, которые публикуются от имени учреждений КНДР, все чаще ста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официальное название Южной Кореи, которым она называет себя сама. До эт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такого названия на Севере в отношении Юга было табуировано. То есть теперь, приняв официальное название Юга,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является отдель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 отметил он.

(Оконча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 Ким Чен Ын отказался от идеи объединения с Южной Кореей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5-ой странице)

То есть, резюмируя сказанное, мо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Ким Чен Ын провозгласил радикально новую линию в отношении Юга. Ее нельзя назвать более мирной, наоборот,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что отношения строятся как с враждеб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Южная Корея и ее народ теперь считаются не "случайны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образованием нашей общей Кореи" и не "братьями по крови", а просто другим государством и населяющим ее другим народом. Возможно, что позже историки назовут этот доклад Ким Чен Ына на пленуме ЦК ТПК "поворотным", когда Пхеньян официально отказался от риторики в пользу объединения.

"В этом выступлении Ким Чен Ын фактически признал, что уже является давно известным фактом: Южна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 это два совершенно разных государства, их население все менее ассоциирует себя друг с другом,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формируются две разные нации. Тем не менее, открыто признавать это было невозможно. В общем, Ким Чен Ын сказал правду: да, Север и Юг - это два разных государства, да, они находятся в состоянии конфликта, да, население этих стран, скажем так, не испытывают друг к другу симпатий и воспринимают друг друга как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чем иностранцев враждебных. Это все правда, и любопытно, что эту правду в КНДР признали официально.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решительный поворот,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разрыв традиции", - указал профессор Андрей Ланьков.

По поводу причин такого разворота можно долго рассуждать. В первом приближении это выглядит как реакция на крайне проамериканский курс нынешн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

том Юн Сок Ёлем. Даже в Вашингтоне, хваля нынешний подход Сеула, часто шутят, что президент Юн "более проамериканский в свое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чем даже Джо Байден".

Но тут обращают на себя внимание и другие слова Ким Чен Ына, где он отмечает, что на Юге, по сути, нет особой разницы, кто находится у власти - что консерваторы, которые правят сейчас, что демократы, которые обычно пытались развивать отношения с Севером. Возможно, Ким Чен Ын разочаровался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олитиках вообще, хотя еще пять лет назад, в 2018 г. Ким Чен Ын активно встречался с предыдущи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президентом, и тогда тема объединения была актуальна как никогда. Один из источников "РГ" на условиях анонимности сказал следующее: "Когда российская сторона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пыталась убедить Кима развивать отношения с Сеулом, так как это помогло бы реализации трехсторонних проектов с участием РФ, то он ответил следующее: "Я сделал все, что они хотели, я съездил на их территорию, провел несколько саммитов, принял их президента у себя. А что в ответ? В ответ просто какие-то показательн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шоу, а когда дело доходит до ре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то южане жалуются, мол, без согласия США мы не можем ничего делать. И как с ними после этого работать? О каком объединении может идти речь?"

Говорил так на самом деле Ким или нет - вопрос доверия к источнику, но если судить по действиям Пхеньяна, то все это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похоже, что КНДР разочаровалась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няв, что ника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не будет, и теперь просто признала этот уже давно существующий факт.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 Поправки к Специальному закону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Комментарий переводчика

Предлагаю вниманию читателей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еревод статьи Че Сан Гу, председателя организации КИН, за 21 декабря 2023 г. о важном событии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принятии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Парлам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20 декабря 2023 г. поправки к Специальному закону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хотелось бы дать небольшую информацию к данной публикации.

Организация, хорошо известная под аббревиатурой KIN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지구총동포연대 означает «Всемирное сообщество коре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дним из направлени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является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дежды Сахалина (사할린희망캠페인)». Для меня деятельность KIN ассоциируется с имен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KIN Че Сан Гу (최상구), который начал деятельность в KIN с работы по перезахоронению останков лиц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много встречаясь с людьми, глубоко прочувствовал тяготы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е. Вникнув в историю несостоявшейся репатриации, ограниченное переселение лиц 1-го поколения, начавшееся в конце 90-х годов по линии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он принимал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лоббировании принятия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который хотя бы спустя 70 лет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предоставил бы возможность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всем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Истор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есостоявшейся репатриации, дебатов по Специальному закону Че Сан Гу изложил в книге «Сахалин. История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пустивших корни на замерзшем острове» (2015 г.). В «Комментарии KIN» я читаю между строк непримиримую гражданскую позицию KIN / 최상구, неприятие половинчатых поправок в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Цитата из книги: «В ходе обсуждения проекта спецзакона с 17 по 19 созывы Парламен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Парламент осознали, что проблемы, с которыми столкнулись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были не просто следствием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ошибок или злой судьбы, а возникли из-за неспособ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ыполнить свой долг по защит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Также они признают, что хоть сейчас нужно защитить и поддержать их.»

Я воспринимаю «Комментарий KIN» как обращение к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продолжать добиваться поправки, решающей вопрос потомков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 живы или нет родители 1-го поколения. Это обращение очень актуально здесь и сейчас, написано по «горячим следам». От нас,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зависит - сможем ли мы сплотиться и мобилизовать усилия на справедливое решение вопроса.

Ким Тхе Ик

## Современный дом культуры в Соколе появится в этом году

Несмотря на морозы и обильные снегопады, в селе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полным ходом ид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а культуры. Рабочие уже закончили отделку стен и приступили к монтажу систем отопления и вентиляции. Снаружи ведутся фасадные работы.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в Соколе было три дома культуры. Ни один из них не сохранился.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сейчас вынуждены ютиться в здании сель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аздники сельчане отмечают на улице, а встречи проводят в актовом зале школы.

С открытием дома культуры наша жизнь сильно изменится в лучшую сторону. Дети смогут посещать кружки, заниматься творчеством, а у нашего любимого хора, наконец-то, появится своя собственная сцена для выступлений и репетиций, - рассказала жительница села Юлия Пилипюк.

Глава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Александр Тугарев отметил, что вопрос строительства дома культуры в Соколе поднимается на каждой встрече с жителями.

Долинцы высказывают свои пожелания, задают вопросы по функционалу и наполнению помещений. Пожелания людей принимаются к рассмотрению и детальной проработк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этого объекта находится в зоне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 отметил мэр района.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Комплексное развитие сель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реализуемой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Также средства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ыделяются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местного бюджетов. Сдать дом культуры планируется в декабре 2024 года.

## Вице-премьер Денис Мантуров поддержал проекты промышл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Министр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енис Мантуров и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и рабочую встречу.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едставил проекты по развитию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энергетики и заручился поддержкой федеральных властей в их реализации.

Сегодн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формируется Восточный водородный кластер, создание которого поддержано соглашениями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ГК «Росатом», АО «РАОС», ПАО «Газпром» и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Цель - создать новую отрасль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в регионе для экспорта водорода, развития водородных технологий полного цикла и внутреннего их потребления в энергетике, на транспорте и коммунальном хозяйстве.

В рамках кластера планируется реализовать три пилотных проекта. Так, экспортноориентированный водородный завод обеспечит низкоуглерод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водорода

методом паровой конверсии метана. В рамках второго проекта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о пассажирско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е сообщение с применением поездов на водородных топливных элементах и систем обеспечения их эксплуатации. Также будет создан Центр водородного инжиниринга с опытным полигоном для апробации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в реальном секторе эконом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дородный кластер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технологическую независимость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бласти водорода и низкоуглеродных технологий, масштабирование этих технологий и выход на экспорт водорода и сопутствующей продукции из страны АТР, - отметил вице-премьер Денис Мантуров.

Он добавил,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может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поддержку и сопровождение Минпромторга России в реализации данного проекта.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витие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означает новый этап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науки,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на островах,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и решение бытовых, приземленных задач, призванных сделать жизнь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более комфортной, с другой. Поэтому для нас поддержка Минпромторга России в реализации данного проекта очень существенна и значима,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мимо этог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метил значение создаваемо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Сегодня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мещен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арка шести предприятий-резидентов в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В силу значимости обеспечени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России Денис Мантуров поддержал включение объекта в реестр индустриальных парков Минпромторга России.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чал работать отдел по оказанию бесплатной юридической помощ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юридического бюро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в виде устных и письменных консультаций, составления документов правового характера, представления интересов в судах, а также выдачи направлений к адвокатам.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ддержал предлож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создании во всех субъектах стра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юридических бюр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этим решение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чал свою работу отдел ОГК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юридическое бюро». Специалисты оказывают бесплатную юридическую помощь гражданам,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места их регистраци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Город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деятельности мировых суд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вгений Звягин.

Важными преимуществ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юридического бюро являются понятная для граждан структура оказания бесплатной юридической помощи. Наличие бюро, имеющего в

штат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юристов, оснащенных необходим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способствует увеличению числа граждан, обеспеченных бесплатной юридической помощью, позволяет в полной мере предоставлять им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е гарантии.

К категориям граждан, имеющих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помощи, в частности относятся: беременные женщины, родители, воспитывающие трех и более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до 18 лет, граждане старше 70 лет, неработающие пенсионеры, достигшие возраста 60 и 55 лет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мужчины и женщины), получающие пенсию в размере, не превышающем в два раза размер величины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малоимущие, инвалиды 1-2 групп, дети-инвалиды, дети-сироты, дети, оставшиеся без попечения родителей, лица из числа детей-сирот и детей, оставшихся без попечения родителей, граждане пожилого возраста и инвалиды, проживающие в организациях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предоставляющих социальные услуги в стационарной форме, недееспособные, усыновители, граждане, оказавшие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проходящие (проходившие) военную службу по контракту и участвующие (участвовавшие) в СВО, ветераны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а также члены их семей, и другие, - сообщи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Анна Такасима.

Полные перечни случаев и категорий жителей, имеющих право на оказание бесплатной юридической помощи, указаны в Федеральном законе от 21.11.2011 № 324-ФЗ «О бесплатной юридической помощ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кон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3.11.2014 № 61-ЗО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гарантиях реализации права граждан на получение бесплатной юридической помощ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щь оказывается в форме правовых консультаций, а также путем составления исковых заявлений, жалоб, ходатайств, представления интересов граждан в судах. Кроме того, может быть оказана помощь в форме выдачи направлений к адвокатам для оказания гражданам бесплатной юридической помощи.

Отдел расположен недалеко о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суда, напротив здания водоканала, по адресу: город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рюкова, 35, кабинет 8, вход с восточной стороны здания, домофон «Госюрбюро. Юристы».

Телефоны: 8 (4242) 557550, 557551, 557552, 557553, 557554. Время работы: с 09:00 до 17:15 (понедельник-четверг), с 09:00 до 17:00 (пятница), перерыв на обед с 13:00 до 14:00.

В остальны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есплатную юридическую помощь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в администрациях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ов.

Информация о категориях граждан, имеющих право на оказание бесплатной помощи, случаях, адресах и номерах телефонов специалистов размещена в разделе «Бесплатная юридическая помощь» на сайте агентства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деятельности мировых суд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https://ams.sakhalin.gov.ru/grajdanin/besplatnaja-juridicheskaja-pomoshch/>.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갑진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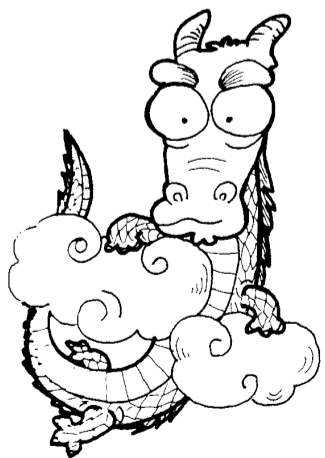
음력설 2.10  
 한식 4.5  
 단오 6.10  
 초복 7.15  
 중복 7.25  
 말복 8.14  
 추석 9.17  
 성탄절 12.25



# 2024년

	1월 음력 11-12월					2월 음력 12-1월					3월 음력 1-2월					
월	1 11.20	8 27	15 5	22 12	29 19		5 26	12 3	19 10	26 17		4 24	11 2	18 9	25 16	
화	2 21	9 28	16 6	23 13	30 20		6 27	13 4	20 11	27 18		5 25	12 3	19 10	26 17	
수	3 22	10 29	17 7	24 14	31 21		7 28	14 5	21 12	28 19		6 26	13 4	20 11	27 18	
목	4 23	11 12.1	18 8	25 15		1 12.22	8 29	15 6	22 13	29 20		7 27	14 5	21 12	28 19	
금	5 24	12 2	19 9	26 16		2 23	9 30	16 7	23 14		1 1.21	8 28	15 6	22 13	29 20	
토	6 25	13 3	20 10	27 17		3 24	10 1.1	17 8	24 15		2 22	9 29	16 7	23 14	30 21	
일	7 26	14 4	21 11	28 18		4 25	11 2	18 9	25 16		3 23	10 2.1	17 8	24 15	31 22	
	4월 음력 2-3월					5월 음력 3-4월					6월 음력 4-5월					
월	1 2.23	8 30	15 7	22 14	29 21		6 28	13 6	20 13	27 20		3 27	10 5	17 12	24 19	
화	2 24	9 3.1	16 8	23 15	30 22		7 29	14 7	21 14	28 21		4 28	11 6	18 13	25 20	
수	3 25	10 2	17 9	24 16		1 3.23	8 4.1	15 8	22 15	29 22		5 29	12 7	19 14	26 21	
목	4 26	11 3	18 10	25 17		2 24	9 2	16 9	23 16	30 23		6 5.1	13 8	20 15	27 22	
금	5 27	12 4	19 11	26 18		3 25	10 3	17 10	24 17	31 24		7 2	14 9	21 16	28 23	
토	6 28	13 5	20 12	27 19		4 26	11 4	18 11	25 18		1 4.25	8 3	15 10	22 17	29 24	
일	7 29	14 6	21 13	28 20		5 27	12 5	19 12	26 19		2 26	9 4	16 11	23 18	30 25	
	7월 음력 5-6월					8월 음력 6-7월					9월 음력 7-8월					
월	1 5.26	8 3	15 10	22 17	29 24		5 2	12 9	19 16	26 23		2 30	9 7	16 14	23 21	30 28
화	2 27	9 4	16 11	23 18	30 25		6 3	13 10	20 17	27 24		3 8.1	10 8	17 15	24 22	
수	3 28	10 5	17 12	24 19	31 26		7 4	14 11	21 18	28 25		4 2	11 9	18 16	25 23	
목	4 29	11 6	18 13	25 20		1 6.27	8 5	15 12	22 19	29 26		5 3	12 10	19 17	26 24	
금	5 30	12 7	19 14	26 21		2 28	9 6	16 13	23 20	30 27		6 4	13 11	20 18	27 25	
토	6 6.1	13 8	20 15	27 22		3 29	10 7	17 14	24 21	31 28		7 5	14 12	21 19	28 26	
일	7 2	14 9	21 16	28 23		4 7.1	11 8	18 15	25 22		1 7.29	8 6	15 13	22 20	29 27	
	10월 음력 8-9월					11월 음력 10월					12월 음력 11-12월					
월		7 5	14 12	21 19	28 26		4 4	11 11	18 18	25 25		2 2	9 9	16 16	23 23	30 30
화	1 8.29	8 6	15 13	22 20	29 27		5 5	12 12	19 19	26 26		3 3	10 10	17 17	24 24	31 12.1
수	2 30	9 7	16 14	23 21	30 28		6 6	13 13	20 20	27 27		4 4	11 11	18 18	25 25	
목	3 9.1	10 8	17 15	24 22	31 29		7 7	14 14	21 21	28 28		5 5	12 12	19 19	26 26	
금	4 2	11 9	18 16	25 23		1 10.1	8 8	15 15	22 22	29 29		6 6	13 13	20 20	27 27	
토	5 3	12 10	19 17	26 24		2 2	9 9	16 16	23 23	30 30		7 7	14 14	21 21	28 28	
일	6 4	13 11	20 18	27 25		3 3	10 10	17 17	24 24		1 11.1	8 8	15 15	22 22	29 29	

절기 소 대 입 우 경 춘 청 곡 입 소 망 하 소 대 입 처 백 추 한 상 입 소 대 동  
 한 한 춘 수 칩 분 명 우 하 만 종 지 서 서 추 서 로 분 로 강 동 설 설 지  
 (양력) 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일 6 20 4 19 5 20 4 19 5 20 5 21 6 22 7 22 7 22 8 23 7 22 7 21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 사할린 장애 아동들을 위해 체호브 센터의 여배우, 새해 동화 제작 및 상연

체호브 센터의 여배우 마리나 세묘노브나가 '극복'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사할린 재활센터의 학생들을 위해 새해 동화 -오전 공연을 창작해 공연을 연출했다고 체호브 센터가 전했다. 마리나 세묘노브나 배우의 말에 따르면 새해에 앞서 '멋진 극장' 예술단이 31호 학교 학생들과 '최고들의 활동' 전 러시아 아동 및 청소년 운동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말하자면 '극복' 재활센터의 아동들을 위한 오전 자선공연을 여는 것이다.

"나는 시나리오를 쓰고, 체호브 센터는 의상을 제공했으며, 제5호 학교는 연습을 위해 강당을 제공했다. 다양한 능력이 있음에도 100% 모든 것에 즐거워할 수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눈의 소녀와 그 친구들> 공연을 세 번 상연했다. 우리와 '극복' 재활센터의 지도부는 첫 공연에 독특한 경험 (이전에 센터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연극 전문가들만이 연극을 상연을 했다)이란 점을 생각하며 무척 걱정했다.

그러나 모두 잘 되었다! 연극 참가로 많은 긍정적인 정서가 우리에게 생겨났고, 관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고 마리나 세묘노브나가 말했다.

## 악триса Чехов-центра срежиссировала новогоднюю сказку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детей с ОВЗ

Актриса Чехов-центра Марина Семенова выступила режиссером и автором новогодней сказки-утренника для воспитан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для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Преодоление",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Чехов-центра.

По словам сахалинской актрисы, перед Новым го-

дом коллектив "Классный театр" попросил ее помочь реализовать идею ребят из 31-ой школы и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Движение Первых", а именно - провест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е утренники для детского центра "Преодоление".

— Я написала сценарий, Чехов-центр предоставил костюмы, а школа №5 — актовЫй зал для репетиций. Мы три раза отыграли наш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Снегурочка и ее друзья" для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которые, несмотря на раз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умеют веселиться на все сто процентов! И мы, и руководство центра "Преодоление" очень волновались перед первым показом, учитывая, что это был уникальный опыт (до этого для детей из центра играли только их специалисты). Но все получилось! У нас много положительных эмоций от участия, благодарных слов от зрителей, — рассказала Марина Семенова.

## 사할린 주민들 10일간 스포츠와 건강을 위한 즐거운 대회에 참가

2024년 1월 7일(일) 사할린에서 10일에 걸친 스포츠와 건강대회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2단계 대회가 열렸다. 다양한 연령층의 활동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9개 팀들이 즐거운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시공원 '코스모스' 경기장에 모였다.

사할린주 스포츠부 아르쵸프 포드쉬발로브는 활동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행사에 참가한 것을 보고 기쁨을 표현하며, 참가자 중 많은 주민들이 이미 10일간 첫 단계인 '새해 경주' 경기에 참가했다며, 연휴에도 지역 주민들이 활동적인 휴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포츠부 장관은 참가자들에게 즐거운 마음과 행운을 기원했다. 참가자들에게는 컬링과 릴레이 경주 두 종목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대회의 우승자는 두 종목 경기에서 나온 결과를 합산해 결정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24년을 가정의 해로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주최 측은 자녀들과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를 비롯해 친구들과 동료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단체 경기에

중점을 두기로 결정했다. 치러진 경기 결과에 따라 '쫄뽀랴타'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참가자들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긍정적인 마음을 충전할 수 있어 특별했다며 흥미로운 행사에 참가하는 즐거움과 만족을 표현했다.

2위로는 '아이스베르그(빙산)'팀이 차지했고, 3위는 '지키예 코티키(야생 고양이)'팀이 차지했다.

##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сразились в веселых стартах на Декаде спорта и здоровья

7 января 2024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второй этап Декады спорта и здоровья на Сахалине. Девять команд, состоящих из любителей активн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всех возрастов, собрались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чтоб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веселых стартах.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Подшивалов выразил радость по поводу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сторонников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Он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многие из участников уж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первом этапе Декады — «Новогоднем забеге», ч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том, что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предпочитают активный отдых даже в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Министр пожелал участникам удачи и хорошего настроения.

Участников ожидали две дисциплины — керлинг и эстафеты. Победители определялись по сумме результатов в обоих этапах состязаний. В связи с объявлением 2024 года Годом семьи президентом РФ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организаторы решили сделать упор на коман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в которых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се желающие — дети, их родители, бабушки и дедушки, а также друзья и коллеги.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стартов победу одержала команда «Цыплята». Участники выразили свою радость и удовлетворение от участия в этом увлекатель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отмеч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сти время с семьей или друзьями, зарядиться положительными эмоциями. Команда «Айсберг» заняла второе место, а третье место заняли «Дикие коттики».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